

인도, 방갈로르 성모 방문 관구, 취임식



“주님을 찬송하여라, 선하신 분이시다!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.” – 1 역대 16,34

2019년 12월 29일은 방갈로르 성모 방문 관구의 역사에 중요한 은총의 날로 자리매김 했습니다. 우리는 새 관구장과 리더십 팀의 취임식을 보았습니다. 관구 본원의 줄리 홀에서는 미사와 취임식이 거행되는 동안 하느님을 향한 기쁨의 찬미와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. 예수회의 다니엘 라쥬 신부가 7시에 미사를 집전했습니다.

총 참사인 메리 스리자 수녀는 *부름받고 축복받으며 쪼개어져 나누어지다*라는 주제로써 9시 15분에 시작된 취임식을 진행해 주었습니다. 수녀들은 지난 9년 간 관구에 대한 헌신적 봉사에 대해 메리 산디야 수녀와 참사회에게 인정과 감사를 전했습니다. 리더십 팀 각자 앞으로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도록 불이 밝혀진 초를 받았습니다. 새 관구장과 참사들 각자가 상징적 몸짓으로 성경을 받아들였을 때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야 할 의무를 맡게 되었습니다.

메리 체타나 수녀, 관구장

메리 크리파 수녀, 1 참사

메리 사티야 수녀, 관구 참사

메리 알파나 수녀, 관구 참사

메리 체타나 수녀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관구를 이끌어 갈 책임을 받아들였으며 수녀들은 그 응답으로 “저희를 이끄소서, 오 주님, 저희를 이끄소서...” 취임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 체타나 수녀가 관구 회원들에게 소감을 밝혔습니다. 우리 모두에게 은총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. 이 은총과 축복의 시간에 함께 해 준 메리 스리자 수녀님께 감사 드립니다.

수녀들은 모두 자신을 내어준 새 리더십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하했습니다. 앞으로의 시간 동안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.